

기후변화 대응

TCFD Report

지구는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히 지켜야 하는 책임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넷제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글로벌 리딩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기후변화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기업의 재무 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광범위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기후변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KB금융그룹은 과학기반의 중장기 탄소중립 추진 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중 아시아 지역 최초이자 국내 기업 최초로 SBTi(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승인을 획득하는 등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금융그룹은 'KB Green Wave 2030', 'Risk Management' 등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을 모색하고 친환경 금융 생태계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은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구성원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기후변화의 리스크와 기회를 철저하게 분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소들이 기후변화 대응 지배구조와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 등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며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KB의 TCFD

• 지배구조(Governance)

- 기후변화 대응 지배구조
- 이사회 Level
- 그룹 경영진 Level
- 계열사 Level

• 전략(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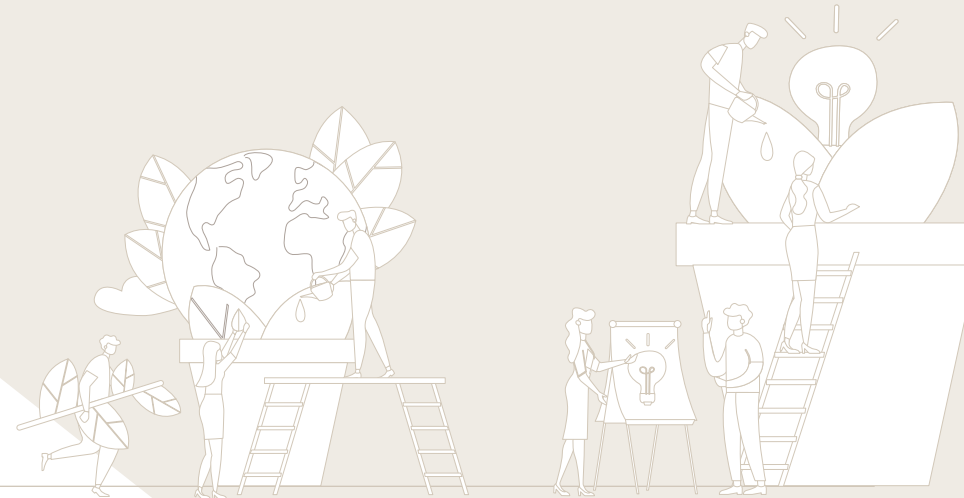
- 기후변화 리스크요인 분석
- 기후변화 기회요인 분석
- 기후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 대규모 PF의 환경·사회 리스크 검토
- 적도원칙 이행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활동

• 지표 및 목표(Metrics & Targets)

- 금융배출량(Scope 3) 산정 프로세스
-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및 실적
- SBTi 방법론
- 금융배출량(Scope 3) 감축 목표 및 경로



KB의 TCFD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G20 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가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 기후변화 이슈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여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18년 TCFD 지지기관에 가입하고 권고안에 따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충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2021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TCFD 보고서를 별도 발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TCFD 보고서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전략 고도화 로드맵

| |  2019 - 2021 기후변화 대응 관리 기반 조성 |  2022 - 2024 기후변화 대응 전략 고도화 |  2025 - 2030 기후변화 리더십 확보 |
|---------|--|---|---|
| 지배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립 • 계열사 내 ESG 회의체 설립 및 전담조직 구축 • 경영진 KPI에 ESG 항목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관리 지표 및 대시보드 개발 • 기후 전문가 양성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내재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선도기업으로서의 리더십 확산 |
|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Ti 기반 넷제로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배출량(Scope 1&2), 금융배출량(Scope 3) 넷제로 전략 포함 • ESG 금융 확대 전략 수립 • 탈석탄 금융 선언 • 시나리오 기반의 포트폴리오 영향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 관리 시스템 구축 • 계열사별 넷제로 이행전략 수립 및 실행 •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통합 관리 및 공시 정착 • 시나리오 기반 기후복원력 강화 전략 실행 |
| 위험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ESRM) 제정 • 적도원칙에 기반한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배출 산업 대상 참여(Engagement) 계획 수립 • 기후리스크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리스크 통합관리 체계 강화 • 기업 ESG 리스크 평가 체계 정착 |
| 지표 및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배출량(Scope 1&2) - 금융배출량(Scope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측정 방법론 개발에 따라 금융배출량(Scope 3) 측정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성과 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금융 목표 달성(2030년) • 넷제로 목표 이행 중간 점검 및 목표 재수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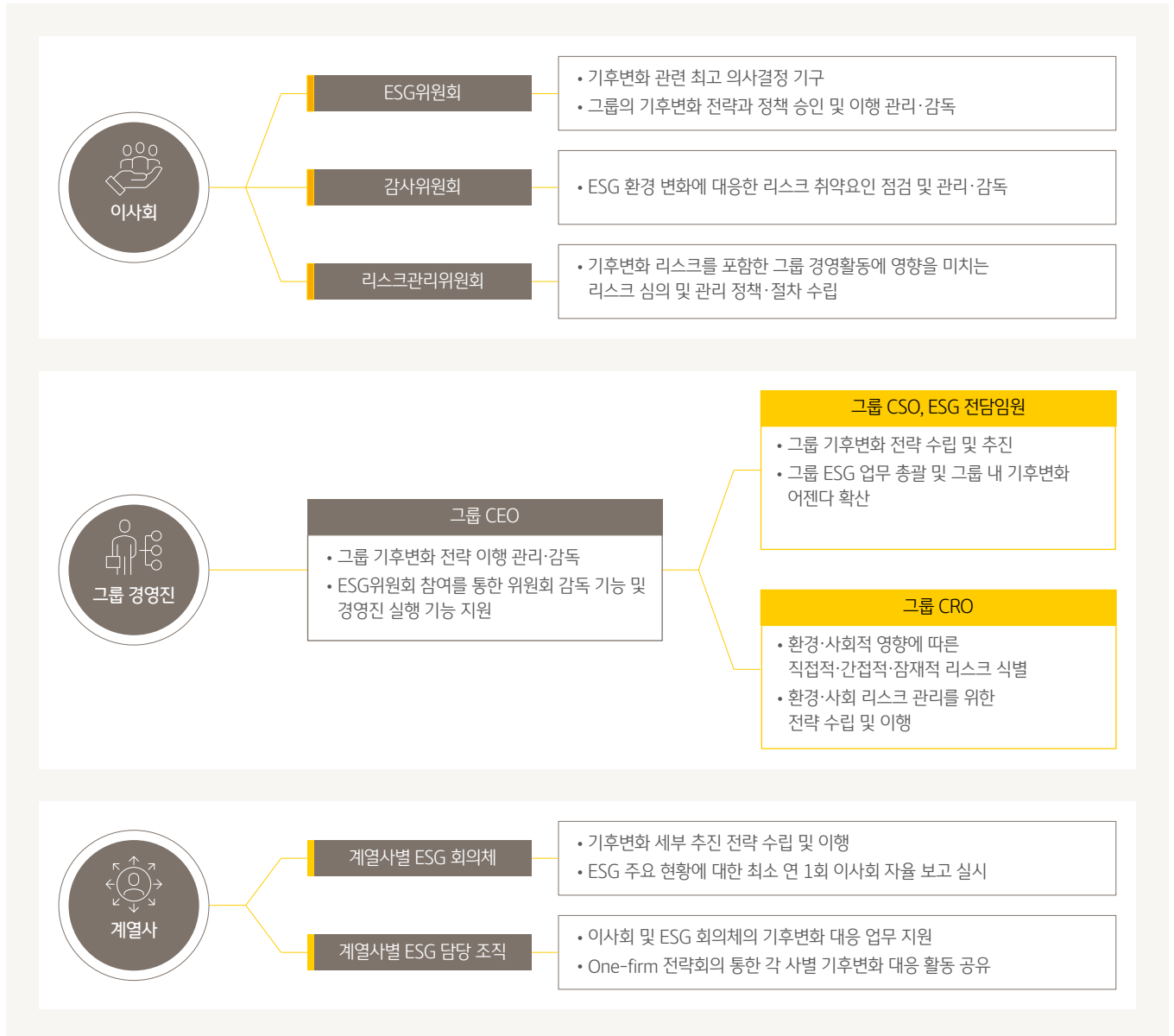
지배구조(GOVERNANCE)

기업은 체계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며 각각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이 전문성에 기반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하며,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금융그룹은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기후변화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지배구조는 이사회, 그룹 경영진,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 각 주체들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기후 변화 리스크 및 기회 요소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전략과 재무 계획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그룹 리스크 관리에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그룹 차원에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GOVERNANCE)

기후변화 대응 지배구조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CEO를 중심으로 그룹 CSO와 ESG전담임원이 그룹의 기후변화대응 전략부문을 총괄하며, 그룹 CRO는 기후변화가 KB금융그룹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여 관리전략을 수립합니다. 더불어 각 계열사는 계열사별 각각의 회의체 및 담당조직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Level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그룹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성된 산하 위원회의 활동을 검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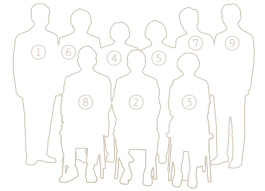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의사결정 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B금융그룹은 ESG에 대한 이사진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돕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트렌드, 감독규제 동향, 금융산업의 대응 방향, 공시 체계의 변화 등을 주제로 한 외부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KB경영연구소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내·외 ESG 동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분기별로 이사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신입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그룹 ESG 전략 및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ESG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보고기준 대응 전략 등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한 ESG 교육을 진행하여 이사회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KB금융지주는 2020년 금융권 최초로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유일하게 사외이사와 상임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ESG 경영이 이사회와 집행 경영진 간의 조화를 통해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ESG위원회는 그룹 기후변화 대응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KB금융그룹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 추진과제 이행 현황, ESG 상품·투자·대출 운영 현황,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현황 등이 있습니다.

* ESG위원회 위원

- ① 오규택 이사(위원장)
- ② 김경호 이사
- ③ 권선주 이사
- ④ 조화준 이사
- ⑤ 여정성 이사
- ⑥ 최재홍 이사
- ⑦ 김성용 이사
- ⑧ 윤종규 대표이사
- ⑨ 이재근 비상임이사



ESG위원회 결의 및 보고사항(기후변화 대응 관련)

| 구분 | 결의 및 보고사항 |
|-------------|--|
| 2022년 1차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ESG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방향(안) |
| 2022년 2차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그룹 ESG 주요 추진계획 - 탄소 중립 목표 이행 현황 - ESG 금융상품 현황 -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
| 2023년 1차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ESG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방향(안) - 탄소중립 목표 이행 현황 - ESG 금융상품 현황 -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 2023 ESG 중대성 평가 결과 |



지배구조(GOVERNANCE)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주주, 투자자 및 고객의 가치 증대를 위해 내부통제체계 및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점검 및 평가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ESG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사적 대응체계 구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ESG 관련 이슈가 ESG 경영활동에 반영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KB금융그룹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하는 등 ESG 이슈 대응 활동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진으로 구성된 관리·감독기구로,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하여 기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를 심의하며 관련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가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2023년 4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룹 경영진 Level

그룹의 경영진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경영진 KPI에 ESG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 ESG 금융상품 확대 등 그룹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연계한 지표를 KPI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룹 CEO

그룹 CEO는 기후변화 전략에 따른 그룹 내 활동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을 총괄합니다. 또한 ESG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위원회의 감독 기능과 경영진의 실행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략총괄(CSO, Chief Strategy Officer) 및 ESG전담임원

그룹 CSO 및 ESG전담임원은 기후변화 전략과 KB금융그룹의 탄소중립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해당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관련 어젠다를 그룹 내에 확산하여 임직원이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ESG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룹 위험관리최고책임자(CRO)

그룹 CRO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비롯한 ESG 리스크를 리스크 관리체계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사회적 영향에 따른 직접적·간접적·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Level

KB금융그룹의 계열사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ESG 회의체와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별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그룹의 ESG 전략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전사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ESG 회의체

KB금융그룹은 각 계열사의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ESG 이슈를 총괄하는 ESG 회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계열사의 ESG 회의체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이슈의 주요 현황에 대해 이사회에 연 1회 자율 보고하고 있습니다.

ESG 담당조직

KB금융지주와 각 계열사는 ESG 담당조직을 구성하여 ESG 실무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ESG 담당조직은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계열사의 특성을 반영한 ESG 활동을 이행하고 이를 One-firm 전략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ESG 담당조직은 이사회 및 ESG 회의체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STRATEGY)

기후변화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기업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은 수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기후변화 리스크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TCFD 권고안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먼저 식별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이행리스크와 물리적리스크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요인 분석¹⁾

KB금융그룹은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이행리스크와 물리적리스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행리스크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로 정책 및 법률·기술·시장·평판 리스크가 이에 해당됩니다. 물리적리스크는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하며, 리스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따라 급성리스크와 만성리스크로 나뉩니다. KB금융그룹은 각 리스크에 대해 잠재적 재무 영향과 금융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 구분 | 잠재적 재무 영향 | 금융업에 대한 영향 | |
|---------|-------------|--|--|---|
| 이행 리스크 | 정책 및 법률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규제 강화 및 배출권 가격 인상 환경 공시 기준 신설 및 공시 의무 강화 환경 관련 소송 증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 배출권 미확보 및 할당량 초과에 따른 재무적 부담 증가 고탄소 배출 업종 규제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유형자산 가치 하락 기존 공시 기준과 신규 공시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혼동 환경 관련 소송 비용 증가 IRA 시행에 따른 요건 미충족 시 보조금 및 세액공제 대상 제외 EU CBAM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권 구매 등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재무적 부담 증가 협력사 및 자산 포트폴리오 내 기업의 배출권 미확보, 할당량 초과, 환경 소송 연루 시 공급망 및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뢰성 및 수익성 악화 공시 기준 불일치에 따른 고객, 투자자 등 소통 제약 전기차, 대체에너지 등 친환경 요소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IRA 도입으로 인한 금융업에 대한 규제 및 준수 요구 증가 EU CBAM 도입 시 기후변화 관련 위험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 |
| | 기술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저탄소 기술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 강화 신기술 투자 실패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 신기술 투자 실패에 따른 재무 리스크 증가 기존 자산 상각 및 조기 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투자 기업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수익성 변동 협력사 및 대출·투자 기업의 친환경 및 저탄소 기술 도입 회피 시 공급망 및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뢰성 및 수익성 악화 |
| | 시장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행동 변화 원자재·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변화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폐기물 처리 비용 변화에 따른 생산 비용 변동 자산 재평가에 따른 가치 변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 및 친환경 상품·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증가 상품 및 서비스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 시 수요 감소 및 영업이익 하락 친환경 경영 미이행 시 투자자 신뢰 하락과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 |
| | 평판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및 투자자의 선호도 변화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피드백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략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 친환경 정보 공개, 기후변화 대응 활동 불이행에 따른 기업 평판 하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워싱 이슈 대두 시 기업 평판 하락 협력사 및 자산 포트폴리오 내 기업의 부정적 환경 이슈 대두 시 기업 평판 하락 |
| 물리적 리스크 | 급성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 홍수, 산불 등 극심한 기후현상의 빈도 증가 및 강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및 공급망 피해 확대에 따른 생산 중단 및 영업이익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복구 비용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리스크로 인한 금융기관 영업점 피해 시 인근 지역 고객 불편 증가 전산망 피해 시 온라인 고객 서비스 이용 제약 |
| | 만성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수면 상승, 평균 기온 상승, 만성적 혹서 등을 유발하는 기후 패턴의 장기적 변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자산 조기 처분 및 자산 포트폴리오 평가 절하에 따른 재무적 부담 증가 |

¹⁾ 기후변화 리스크요인 분석은 기업의 사업운영과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활동을 포함하여 수행

전략(STRATEGY)

기후변화 기회요인 분석

기후변화는 기업에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탄소집약적 사업에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비즈니스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회 요인을 자원 효율성·에너지 자원·상품 및 서비스·시장·복원력으로 구분하였으며, 기회요인의 잠재적 재무 영향과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잠재적 재무 영향 | 금융업에 대한 영향 |
|---|---|--|
| 자원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성 제고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 친환경 건축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따른 운영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수익 증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등 순환경제를 통한 자원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효율화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의 자금 수요 증가 산업 모니터링을 통한 자금 수요처 선제적 확보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
| 에너지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저탄소 및 신재생) 에너지원 사용 확대 친환경 및 저탄소 기술 확대 탄소시장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권 및 탄소세 관련 재무 리스크 감소 장기적 운영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향상 기업 이미지 제고에 따른 수요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자원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의 자금 수요 증가 친환경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
| 상품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상품에 대한 고객 선호도 증가 친환경 상품 개발 및 기술 적용 확대 친환경 사업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매출 확대 친환경 사업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상품·투자·대출 규모 확대 친환경 금융 솔루션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신규 시장 진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원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발굴을 통한 신규 시장 진출 친환경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수익 구조 고도화 |
| 복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대체 자원 발굴 및 자원 다각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원력 제고에 따른 고정 자산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상품 수요 증가 이해관계자의 긍정적 평가에 따른 시장 가치 상승, 투자자금 유입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및 자산 포트폴리오 신뢰성 제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전략(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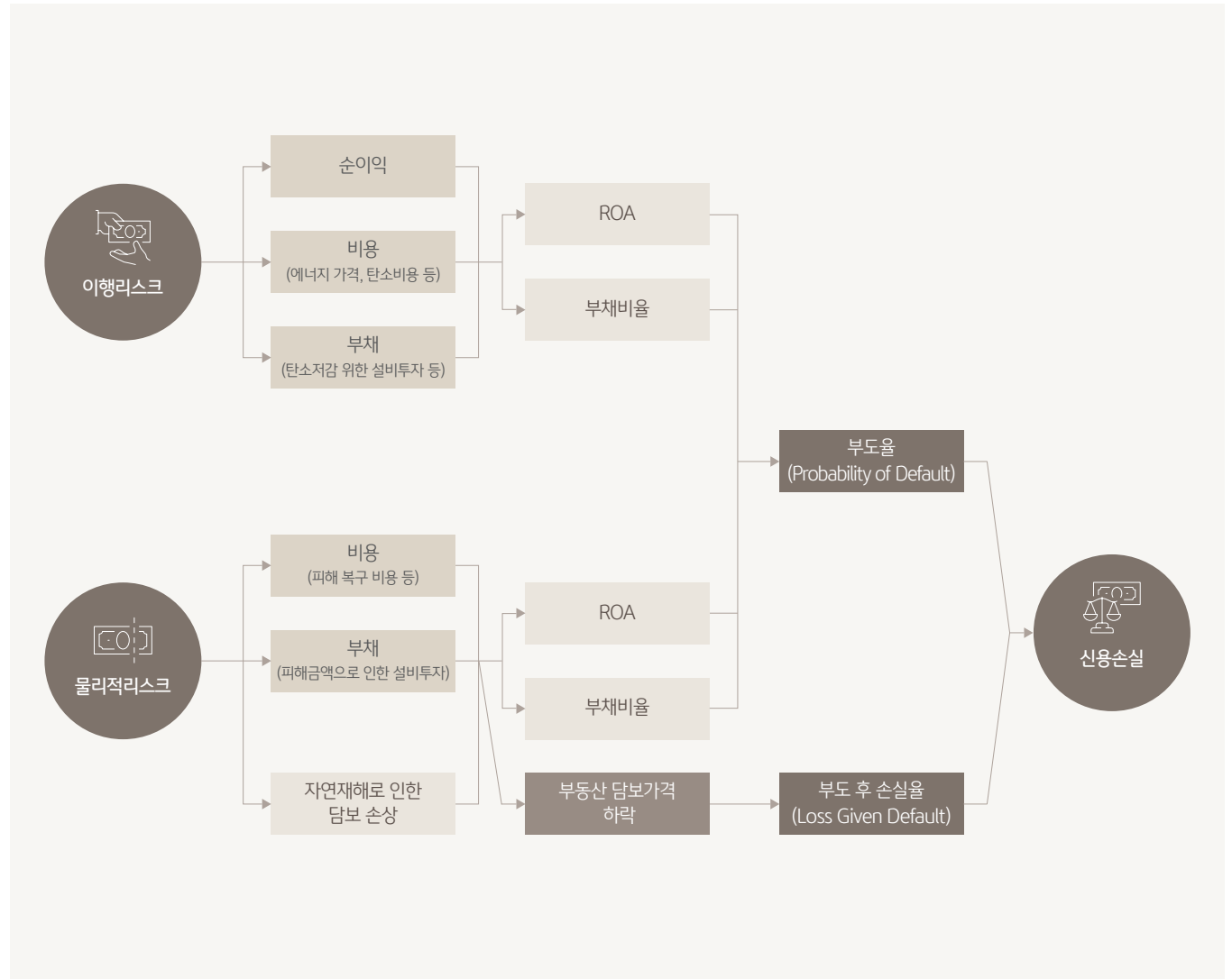
기후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전 세계 주요국의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들은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중요 리스크로 평가됨에 따라, 기존 권고사항이던 기후리스크 관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후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기후리스크 관리 원칙을 반영하여 금융권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개정함으로써 금융권이 해당 지침서를 활용하여 기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가 KB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의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는 2021년 유럽중앙은행이 발표한 ECB모형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하였으며, NGFS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가 KB에 미치는 물리적리스크와 저탄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를 분석하고, KB국민은행 여신 보유 차주의 부도위험, 담보가치 하락 등 기후리스크가 KB금융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 주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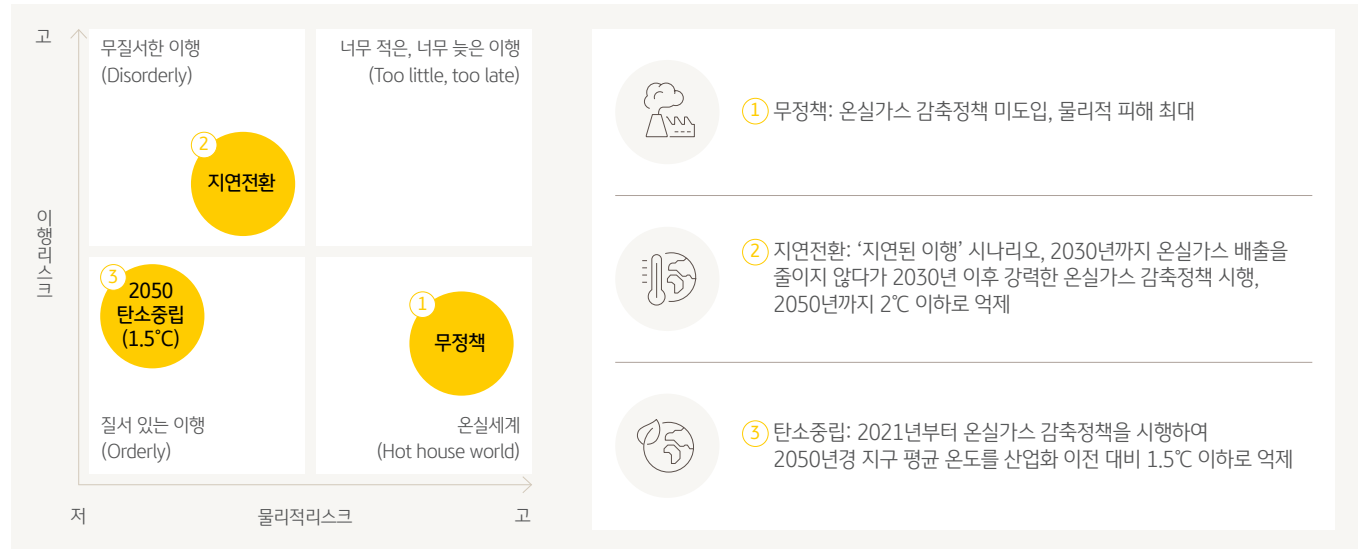
전략(STRATEGY)

NGFS 기후변화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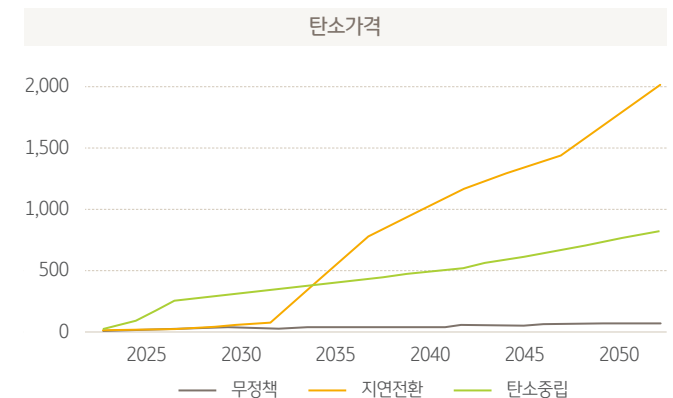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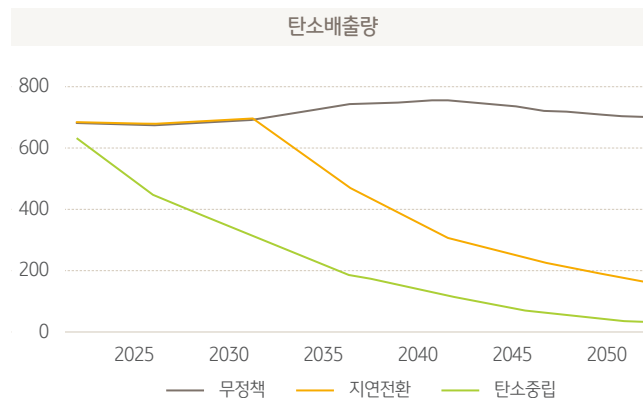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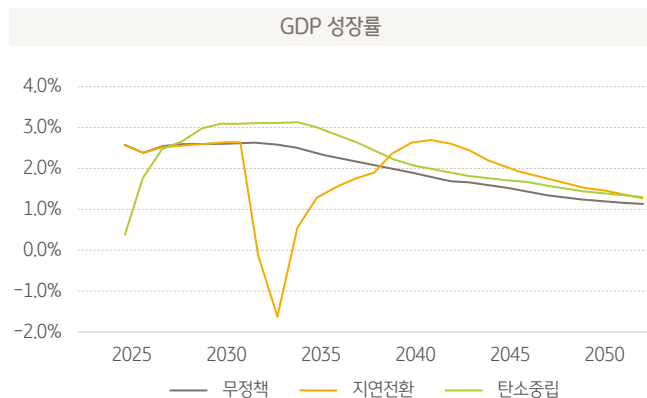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는 NGFS¹⁾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①무정책, ②지연전환, ③탄소중립 등 3가지 상황으로 구분 후 진행되었습니다.

GDP 성장률은 무정책 시나리오에서는 초기에 높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낮아지며, 지연전환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부터 저탄소 정책이 급격하게 시행되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배출량의 경우 무정책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며, 지연전환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21년 677백만 톤에서 2050년 27백만 톤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탄소배출 가격은 지연전환 시나리오에서 가장 높고,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무정책 시나리오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가장²⁾하였습니다.

NGFS 기후변화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탄소배출량, 탄소가격에 대한 가정



¹⁾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가 기후변화,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감독 기준 논의를 위해 만든 글로벌 협의체
²⁾ 탄소배출량 미공개 기업의 경우 회귀식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각 국가별 탄소가격은 미반영

전략(STRATEGY)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가 KB금융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기후리스크를 기후변화(지구 평균온도 상승 등)에 따른 물적피해(물리적리스크)와 탄소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행리스크)으로 구분하여 기후리스크가 실물경제와 KB금융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개요

| 구분 | 주요 설명 |
|--------|--|
| 분석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차주 중 탄소배출량 데이터 보유 차주 또는 탄소배출량 추정 가능한 재무정보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손실 영향 추정 개별 기업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영향 * 분석 대상 차주: ①탄소배출량 데이터 보유 차주, ②탄소배출량 미보유 차주의 경우 탄소배출량 데이터 보유 기업의 매출액, 산업정보를 이용한 회귀식을 통해 별도 추정 |
| 분석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말 자산 기준, 향후 30년(2050년까지) 영향분석 실시 |
| 시나리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리스크 시나리오: 거시경제 및 탄소배출량/가격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GFS 제시 무정책(Current policies), 지연전환(Delayed Transition), 탄소중립(Net Zero 2050) 3개 시나리오 물리적리스크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기상청 강수량 및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의 태풍 및 홍수 피해통계와 지역별 강수량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피해 금액 추정 * 2050년까지 5년 단위 16개 광역시도 단위 환경변수(최고기온, 태풍 및 홍수 피해액 분포 등)를 이용하여 지역별 피해액 추정 |
| 구분 | 주요 설명 |
| 물리적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온도 상승, 기상재해 등의 충격으로 특정지역의 생산성 변화, 재산손실 등을 초래, 피해 차주의 신용위험 증대, 자산가치(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파급된 영향 |
| 이행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경제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발전 등이 기업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 익스포져 규모가 큰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 리스크로 연결 |

이행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분석 개요

기후변화로 인해 산업 전반에 대한 탄소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탄소 경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들의 탄소 비용 부담 등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이행리스크가 금융업 전반과 KB금융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 자산 현황 분석

KB금융그룹은 탄소 규제 강화가 자산 포트폴리오 내 각 산업 부문과 KB금융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¹⁾ 부문별 익스포져와 탄소배출량을 비교하고 탄소 집약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범위는 대출, 채권, 주식 등 기업금융 포트폴리오입니다.

산업 부문별 주요 업종

| 구분 | 내용 |
|--------|---|
| 임의 소비자 | 자동차(부품 산업 포함), 건설, 내구소비재(가정용 전자제품, 패션 액세서리, 의류 등), 소비자 서비스(호텔, 레저시설, 교육 등), 백화점 등 |
| 필수 소비자 | 음식료 생산·판매, 개인용품 생산·판매, 대형 마트 등 |
| 소재 | 철강, 알루미늄, 구리, 기타 금속, 화학, 비료, 특수 화학, 건축 자재, 제지 등 |
| 유틸리티 | 발전(수력, 열병합, 재생에너지 발전 포함), 전력 거래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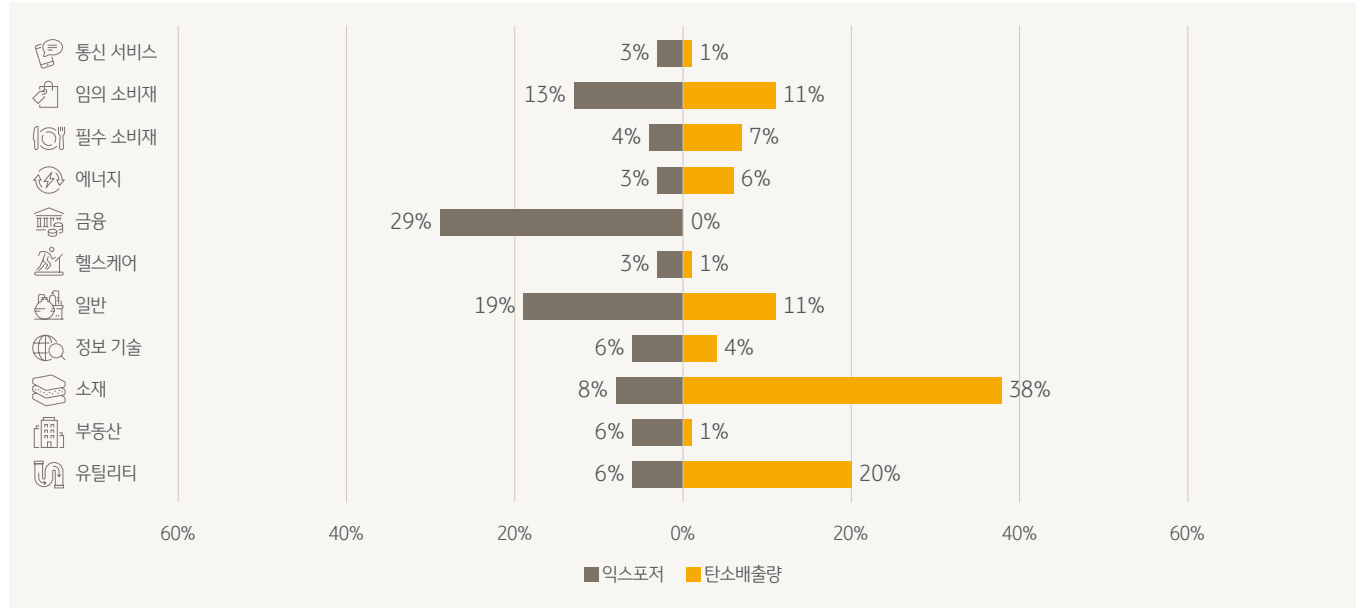
¹⁾ 산업 분류는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글로벌산업분류기준)에 따름

전략(STRATEGY)

KB금융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익스포저(Value Of Holdings)가 높은 산업 부문은 금융(29%), 자본재, 상업 서비스, 운송 등의 일반(19%), 임의 소비재(13%)입니다. 반면 자산 포트폴리오 내 산업 부문 중 탄소배출량 비율이 높은 산업 부문은 소재(38%), 유틸리티(20%), 임의 소비재(11%), 산업(11%)입니다. 이는 익스포저가 높은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량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의미하며, 금융배출량 관리에 있어서 익스포저와 탄소배출량 비중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KB금융그룹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이행리스크 관리를 위해 두 지표를 모두 고려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익스포저가 높은 산업 부문의 경우 탄소배출량의 절대값이 크게 산정되나 산업 부문의 익스포저 비중이 탄소배출량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유의해야 할 산업 부문을 선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며, KB금융그룹은 각 산업 부문과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를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탄소 집약도는 탄소배출량 비교 시 규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객관적인 비교지표로 쓰입니다.

산업 부문별 익스포저 및 탄소배출량 비율



산업 부문 및 자산 포트폴리오별 탄소 집약도(C/R 집약도)¹⁾

(단위: tCO₂eq/백만 원)

| 구분 | 업종 | | | | | | | | | | | |
|-------|----|------|--------|------|------|-------|--------|--------|------|------|------|------|
| | 금융 | 헬스케어 | 통신 서비스 | 부동산 | 일반 | 정보 기술 | 임의 소비재 | 필수 소비재 | 에너지 | 소재 | 유틸리티 | |
| 포트폴리오 | 종합 | 0.03 | 0.09 | 0.10 | 0.18 | 0.23 | 0.23 | 0.26 | 0.46 | 0.61 | 1.27 | 2.12 |
| | 대출 | 0.04 | 0.09 | 0.09 | 0.17 | 0.22 | 0.23 | 0.26 | 0.49 | 0.60 | 1.31 | 1.54 |
| | 채권 | 0.03 | 0.10 | 0.11 | 0.19 | 0.26 | 0.22 | 0.25 | 0.37 | 0.62 | 1.12 | 2.23 |
| | 주식 | 0.04 | 0.16 | 0.07 | 0.09 | 0.24 | 0.26 | 0.32 | 0.26 | 0.78 | 1.08 | 1.87 |

← 탄소 집약도 낮음 → 탄소 집약도 높음

¹⁾ 매출액 대비 탄소 집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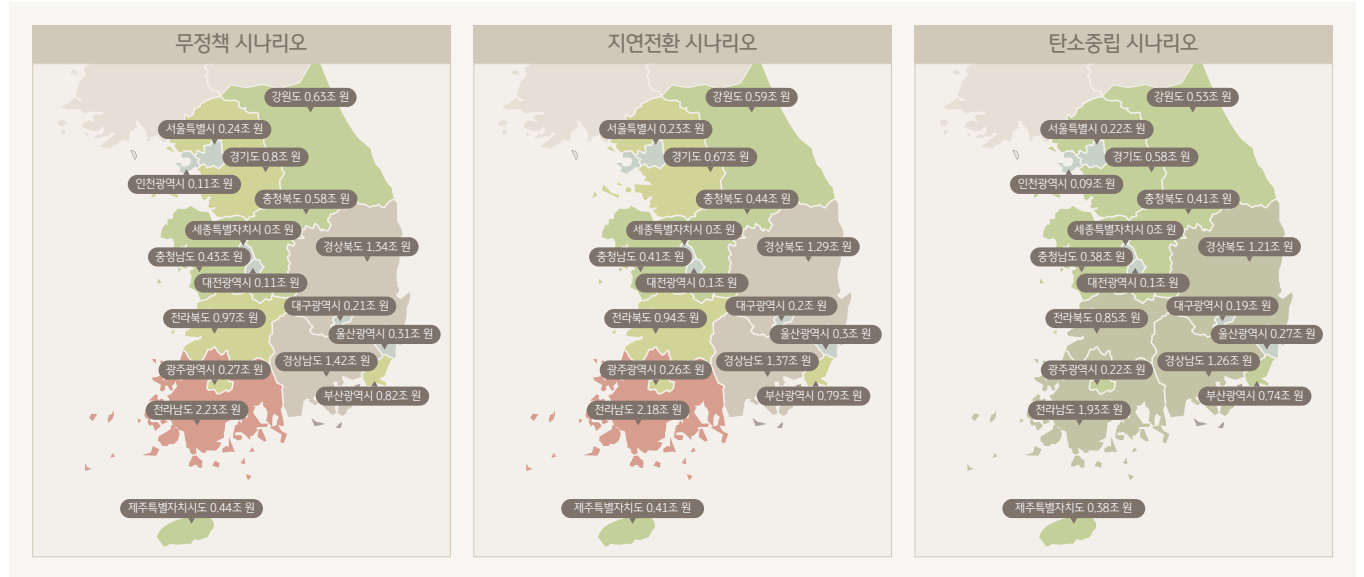
전략(STRATEGY)

물리적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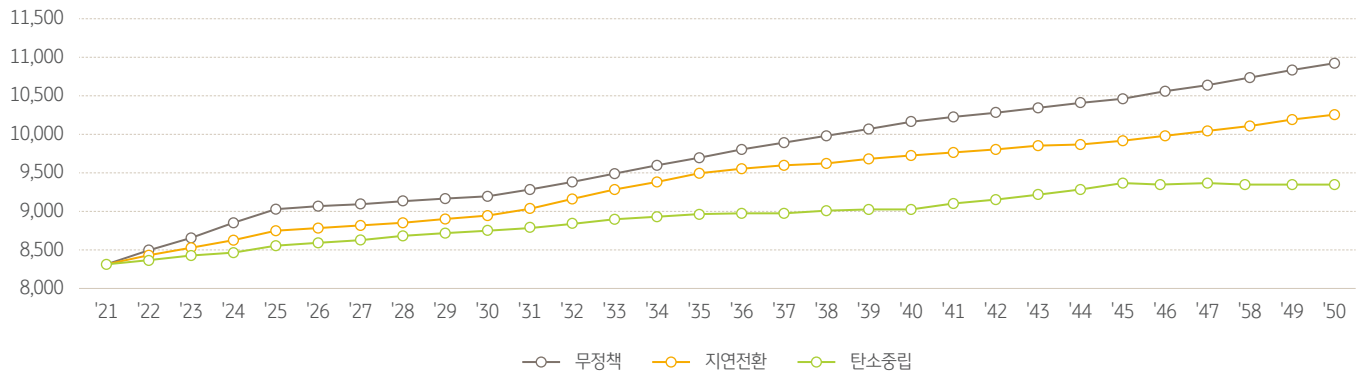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폭염, 한파, 대형 산불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강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KB금융그룹은 물리적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태풍, 홍수로 인한 피해규모를 예측하고 기후변화가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피해액 시물레이션



시나리오별 전국 태풍-홍수 피해액

(단위: 십억 원)



전략(STRATEGY)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담보여신에 대한 물리적리스크 분석

KB국민은행은 NGFS 시나리오를 적용한 스트레스테스트 이외에 RCP 시나리오 분석(RCP2.6, 4.5, 8.5)을 적용하여 기후변화가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물리적리스크(영향과 규모)를 파악하였습니다. RCP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에 따른 지역의 리스크 수준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으로, KB국민은행은 전국 250개 시군구별 '기후위험 노출도'를 산출하고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담보자산에 대한 기후위험 노출도와 담보여신의 피해 규모를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지역별 기상요소(연 강수량, 과거 침수피해 발생 빈도, 산사태 예측정보 등)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기후위험 노출도(Hazard Map)를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지역별로 산출된 기후위험 노출도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담보여신을 중첩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기후위험 노출도가 상승하는 여신의 규모를 분석하였습니다. RCP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시나리오 변경(RCP2.6 → RCP4.5, RCP4.5 → RCP8.5)에 따라 각각 약 7.9조 원, 약 25.3조 원의 부동산 담보여신이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KB국민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부동산 담보여신의 피해 규모를 분석하였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온도가 3°C 상승할 경우 피해 예상 담보여신 규모는 4.7조 원~7.1조 원 수준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KB국민은행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가 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여신의 기후위험 노출 수준 측정 방법

- ① 기본가정: 시나리오 II 가 시나리오 I 보다 기후위험도가 높고 시나리오 I 에서 시나리오 II 로 이동한다고 가정
 - 시나리오 I (RCP2.6) → 시나리오 II (RCP4.5)
 - 시나리오 I (RCP4.5) → 시나리오 II (RCP8.5)
- ② 기후위험 노출도 상승 및 고위험 노출 유지 구간 선별
 - 기후위험 노출도가 상승하는 여신 규모: ●구간(A그룹 → B, C그룹, B그룹 → C그룹)
 - 높은 기후위험 노출도가 유지되는 여신 규모: ●구간(C그룹 → C그룹)

| 기후위험 노출도 | 기후변화 시나리오 II | | |
|-------------|--------------|-----|-----|
| | A그룹 | B그룹 | C그룹 |
| 기후변화 시나리오 I | A그룹 | ● | ● |
| | B그룹 | | ● |
| | C그룹 | | ● |

- 높은 기후위험 노출도가 유지되는 여신
- 기후위험 노출도가 상승한 여신

* 전국 250개 시군구를 기후위험 노출도에 따라 A~C그룹으로 구분
 • A그룹: 기후위험 노출도 0.2 미만
 • B그룹: 기후위험 노출도 0.2 이상 0.4 미만
 • C그룹: 기후위험 노출도 0.4 이상

2022년 부동산 담보여신의 기후위험 노출 수준 측정 결과

| 분석 대상 여신 | 99.7조 원 | |
|-------------|---------------|---------------|
| | RCP 2.6 → 4.5 | RCP 4.5 → 8.5 |
| 노출도 상승 그룹 | 6.8조 원 | 23.4조 원 |
| | A그룹 → B, C그룹 | 4.7조 원 |
| | B그룹 → C그룹 | 2.1조 원 |
| 높은 노출도 유지 | 1.1조 원 | 1.9조 원 |
| 기후위험노출 추정여신 | 7.9조 원 | 25.3조 원 |

전략(STRATEGY)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 결과

KB금융그룹은 2021년 말 자산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향후 30년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차주 중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2,910개 기업과 탄소배출량 데이터는 없으나 기업 재무정보(매출액)와 산업정보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52,654개 기업차주를 대상으로 신용손실 영향을 추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추정 결과

KB금융그룹은 기업들의 과거 부도율을 종속변수로 삼고 GDP, 수익성 지표, 부채비율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이용하여 이행리스크 시나리오에 따른 부도율을 추정하였습니다.

무정책 시나리오에서는 부도율이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연전환 시나리오에서는 2029년까지 무정책 시나리오와 유사한 부도율을 보이나, 2030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설비 구축 및 탄소 비용이 증가하여 부도율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33년 이후에는 다시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초기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도율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그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추정 결과

KB금융그룹은 LGD 추정 시 우리나라 기상청의 강수량 및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의 태풍 및 홍수 피해통계와 지역별 강수량 정보를 활용하여 추정한 지역별 피해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별 피해규모의 경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16개 광역시도 단위의 최고기온, 태풍 및 홍수 피해액 분포 등의 환경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물리적리스크로 인한 태풍·홍수 피해규모의 경우 2050년 기준 무정책 시나리오에서 약 11조 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9조 원 수준으로 가장 낮으며 이는 시나리오별 LGD 비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리적리스크 영향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이 LG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정책 시나리오 하에서 2050년 담보가치 하락률이 약 2% 중·후반으로 추정되어 담보가치하락을 수준이 크지 않아 물리적리스크 발생에 따른 LGD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행리스크로 인한 PD 상승 영향이 물리적리스크로 인한 LGD 상승 영향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 특성 상, 국가별 탄소규제 및 저탄소 이행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의 증가로 인한 신용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신용손실금액 및 BIS비율 추정결과

시나리오별 신용손실규모를 추정한 결과, 2030년에는 지연전환 시나리오에서 신용손실금액이 8,758억 원으로 가장 크게 발생하며, 2050년에는 무정책 시나리오에서 1조 4,132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신용손실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을 시나리오별 신용손실금액 증가규모를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기준시점인 2021년 4분기 기준 17.47%였던 BIS 자기자본비율이 무정책 시나리오에서 17.07%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을 위한 모형을 자체 개발하여 분석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는 장기적 관점에서 30년 동안의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방법론과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KB금융그룹은 탄소배출량 정보가 없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별 탄소 저감장치 설치 비용과 각 국가별 탄소가격에 대한 시나리오 적용을 고도화함은 물론, 물리적리스크의 추정 방법론을 개선하여 분석 모형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STRATEGY)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KB금융그룹 기후변화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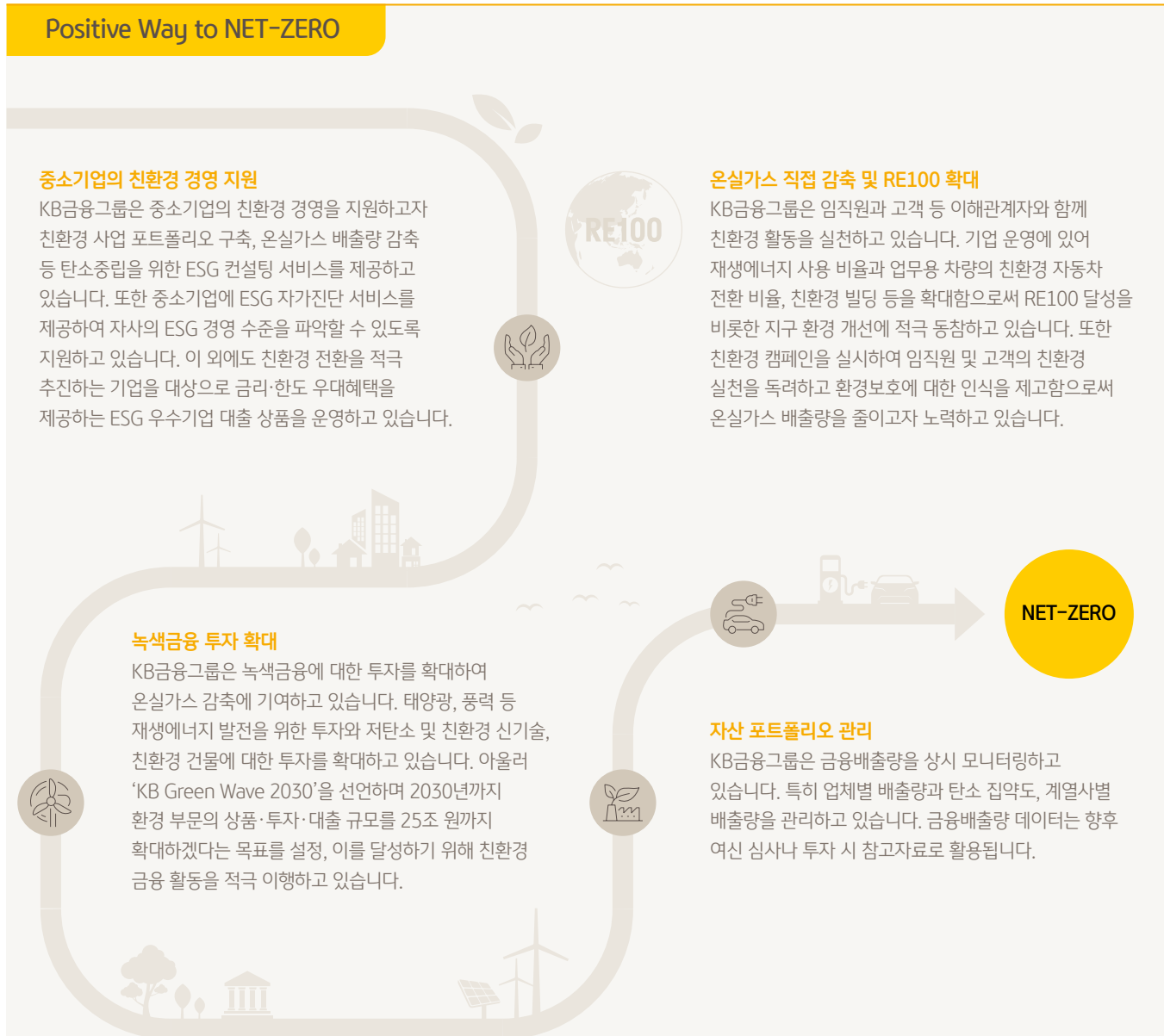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검토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KB Net Zero S.T.A.R.', ESG 금융 확대를 위한 'KB Green Wave 2030',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을 위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등 3가지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STRATEGY)

넷제로 달성 방안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인 KB Net Zero S.T.A.R.에 따라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 지원, 녹색금융 투자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온실가스 직접 감축 및 RE100 확대’ 등 4가지 추진 방안을 설정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그룹은 고탄소 산업을 배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강요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넷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움직임을 지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KB금융그룹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고객의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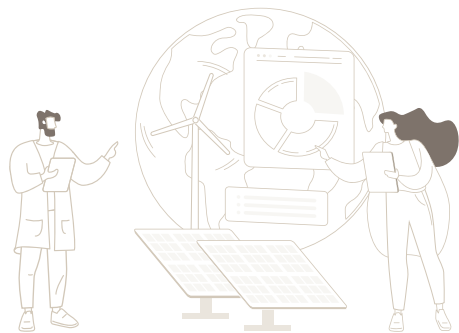


전략(STRATEGY)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 및 친환경 활동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며, 환경 관련 다양한 ESG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환경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84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KB금융그룹의 KB경영연구소, KB증권 리서치센터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이슈를 주제로 하는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ESG 포럼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탄소중립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배출권 거래제도 설계/자문 전문가, 컨설팅 전문기업 임원 등 강사를 초빙하여 패넬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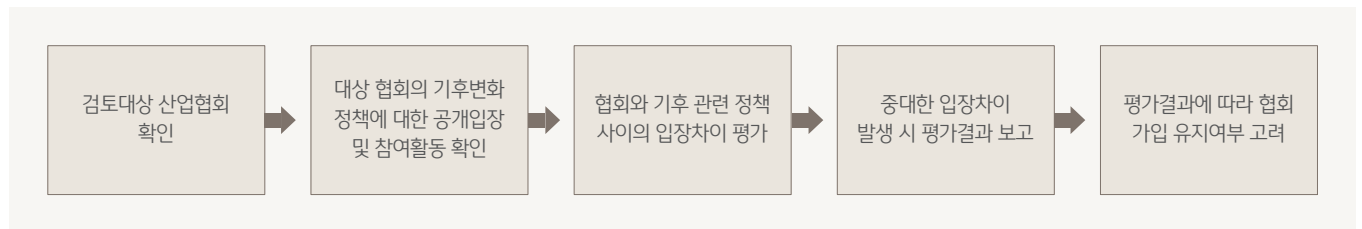
기후 관련 정책 커뮤니케이션

KB금융그룹은 파리기후변화협약과 기후 관련 공공정책을 지지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2년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과 파리협약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사·재보험사 글로벌 연합체인 넷제로보험연합(NZIA)에 가입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넷제로은행연합(NZBA) 최고경영자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은행들과 NZBA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 APAC 자문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기후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KB금융그룹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협회에도 참여하여 활동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협회인 전국은행연합회는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국민 녹색생활 유도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도출된 2030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친환경산업 육성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은행연합회 내부 상설 회의체인 ESG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녹색금융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협회 회원들이 녹색금융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은행연합회가 기후 정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지 기업 내부적으로 검토합니다. KB국민은행은 그룹이 지지하는 기후 관련 정책 사이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를 ESG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산업협회 검토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기업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리스크관리부서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를 중심으로,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리스크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주요 리스크의 발생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내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TCFD 권고안에 따른 기후변화 리스크와 KB금융그룹의 주요 리스크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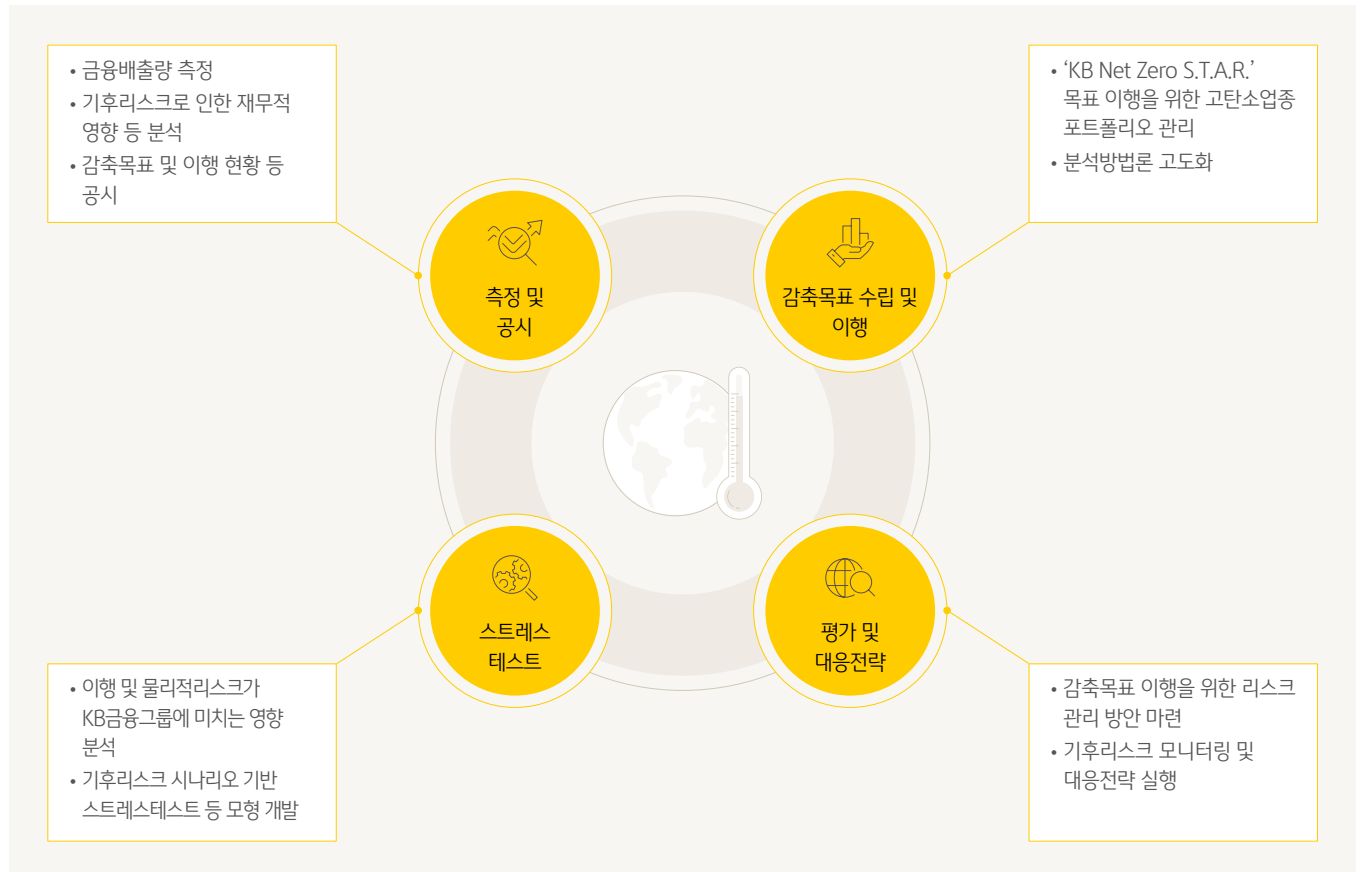
아울러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기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 서비스 제공 대상의 경제활동에 대한 환경·사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ESR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재된 리스크에 따라 각 산업을 배제영역, 기후변화 관심영역, 녹색산업 지원영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할 경우 적도원칙에 따라 잠재적인 리스크와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리스크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KB금융그룹은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리스크의 측정 및 공시, 탄소중립 목표 수립, 스트레스테스트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리스크 관리에 반영하는 등 KB금융그룹의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리스크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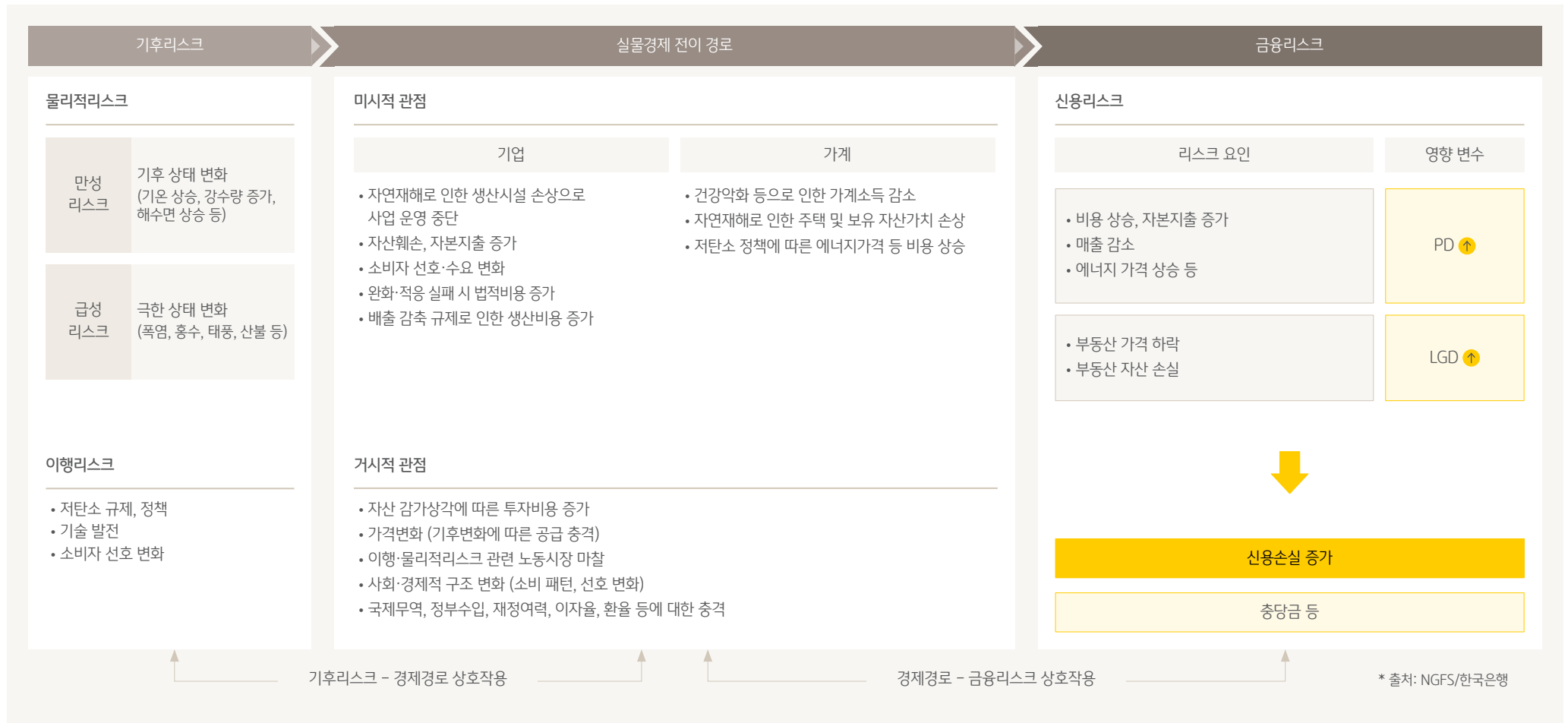
KB금융그룹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KB금융그룹은 물리적리스크와 이행리스크로 구분하여 기후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파급 경로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리적리스크 및 이행리스크 파급 경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분석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기회 요인을 함께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위기로 단정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과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KB금융그룹은 각 리스크가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상·중·하로 분류하고, 기간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대응이 시급한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리스크 요인과 관련된 정량적 요인인 프로젝트 규모, 고객 수, 수익, 운영 비용 등과 정성적 요인인 고객 만족도, 평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리스크의 잠재적인 재무 영향과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리스크 구분 | 기간 ¹⁾ | 전이대상 리스크 | |
|---------|------------------|----------|----------|
| 이행 리스크 | 정책 및 법률리스크 | 단기/중기/장기 | 신용/시장/운영 |
| | 기술리스크 | 단기/중기/장기 | 신용 |
| | 시장리스크 | 단기/중기/장기 | 신용/운영 |
| | 평판리스크 | 단기/중기 | 신용/시장 |
| 물리적 리스크 | 급성리스크 | 단기/중기 | 신용/시장/운영 |
| | 만성리스크 | 중기/장기 | 신용/운영 |

¹⁾ 기간은 단기 1년, 중기 2~10년, 장기 10년 이후로 구분

주요 대응 활동

| 리스크 구분 | 대응 활동 | |
|--------|------------|---|
| 이행리스크 | 정책 및 법률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룹 탄소중립 추진 전략 'KB Net Zero S.T.A.R.' 적극 이행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원을 위한 ESG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배출량 감축 기업에 대한 금융 혜택 부여 기후변화 대응 체계 내 글로벌 공시 기준 적용 강화 탈석탄 금융 선언,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ESRM)를 통한 고탄소 배출 업종 투자 제한 및 기후변화 리스크 최소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응하여 탄소저감 기술 및 전기차 연구개발 등에 금융 지원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
| | 기술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기술 및 연구 동향 모니터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투자 결정 시 모니터링 결과 반영 친환경 기술 관련 투자 확대 친환경 기술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 혜택 부여 |
| | 시장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확대 2030년 환경 부문 상품·투자·대출 규모 25조 원 달성 추진 ESG 금융상품 분류 프로세스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내 ESG 리스크 사전 식별 환경경영 강화를 통한 고객 및 투자자 신뢰 확보 |
| | 평판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CFD 보고서, CDP,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현황 공개 대외 친환경 커뮤니케이션 확대 임직원 환경경영 실천 등 실질적인 환경경영 이행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폐자원 회수 시스템 운영 및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환경 캠페인 추진 |
| 물리적리스크 | 급성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전략 구축 |
| | 만성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산업재해 대응 체계 수립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및 모의훈련, 비상대피 훈련 실시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KB금융그룹은 금융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리스크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ESRM,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기반으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은 모범규준의 도입 배경, 목적 및 원칙, 정보 공개, 임직원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모범규준’과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업종에 대한 선정 근거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관심 영역 정의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범규준 및 기후변화 관심 영역 정의서

| 구분 | 모범규준 | 기후변화 관심 영역 정의서 |
|-------|--|---|
| 정의 | 금융 서비스 제공 대상의 경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및 평가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포괄한 체계 | 온실가스 고배출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 및 업종(관심영역)에 대한 선정 근거 |
| 주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범규준의 목적 및 원칙 배제/관심/지원 영역 구분 및 관리방안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적도원칙 기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ESRM) 정보공개 국제 협력 및 국제 모범기준 설정 기관 참여 임직원 교육 및 역량 강화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리스크(온실가스,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유해화학물질) 및 사회 리스크(지역사회 인권, 근로자 인권)를 고려한 관심 영역 선정 관심영역별 정의 및 모니터링 항목 |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ESRM)

KB금융그룹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ESRM)’를 통해 금융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및 환경·사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ESRM은 산업별로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에 따른 영역 관리,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방향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KB금융그룹은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가 높은 산업과 기업에 투자와 대출을 제한하고, 사회공익에 반하거나 탈법행위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그룹의 비즈니스 전반에서 환경·사회 측면의 위험 요인을 제한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리스크 관리 영역을 ‘배제’, ‘기후변화 관심’, ‘녹색산업 지원’으로 구분하여 그룹의 비즈니스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SRM에 따른 리스크 관리 영역

| 리스크 관리 영역 | 내용 |
|-----------|--|
| 배제영역 |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한 활동 또는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제품/활동의 생산 또는 거래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이 (불법)아동 노동을 포함하는 경우 불법적인 도박/포르노 산업과 관련된 거래 적절히 보호되고 관리, 감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의 생산, 교역, 사용 거래 신규 석탄 채굴 사업 지원 또는 석탄 채굴 사업 확장에 관한 지원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또는 석탄 발전소 증축에 관한 지원 |
| 기후변화 관심영역 | 온실가스 다배출 등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업종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및 관련 익스포저 관리가 중요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 채굴업, 석탄화력발전업, 임업, 기타 고탄소 배출 산업 |
| 녹색산업 지원영역 |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친환경 신성장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지원을 우대하는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주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및 적용 가이드’에서 지정하는 활동 등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2022년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는 각 사의 내규 및 가이드라인에 그룹 ESRM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및 투자와 관련된 사업 심사 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계열사별 ESRM 적용 현황

| 계열사 | ESRM 적용 내규 (가이드라인 등) | 적용 내용 |
|----------|---------------------------------|---|
| KB국민은행 | 산업리스크 관리지침 | 기후리스크산업 관리기준 조항 신설 및 프로세스 운영 (배제/관심/지원영역 정의, 해당산업 분류 및 선정, 자산운용 정책 및 절차 등 포함) |
| KB증권 | ESG 리스크 심사 가이드라인 | KB금융그룹 자체 ESG 리스크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
| KB손해보험 | 자산운용가이드라인 (ESG투자 관련 내용 포함) |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
| KB국민카드 | 여신일반운용지침/투자업무지침 | 금융지원 배제영역 반영 |
| KB라이프생명 | ESG 투자 가이드라인 | 배제/관심영역 설명 |
| KB자산운용 | (대체투자부문) 유의영역 익스포져 현황 및 유의사항 전파 | ESG 투자 펀드에서 Process에 기초한 포트폴리오 구축 |
| KB캐피탈 | Total Exposure 관리지침 | '관심영역' 사업의 투자한도 설정 |
| KB부동산신탁 | 리스크 사전심의보고서 | '시공자격심사기준'에 시공사 ESG경영등급 반영 |
| KB저축은행 | 종합 리스크 관리지침 | '관심영역' 한도관리 및 '배제영역' 배제에 관한 내부 규정 마련 |
| KB인베스트먼트 | ESG 업무규정 | ESG 투자 시 네거티브 스크리닝 실시 |

대규모 PF의 환경·사회 리스크 검토

KB금융그룹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사회 실사를 수행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등 투자 활동에서 환경·사회적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요소를 투자에 반영하기 위해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의 적용 대상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리스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프로세스



¹⁾ 적도원칙 중 원칙 8. 서약 내용 반영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적도원칙 이행

2021년 2월 KB국민은행은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을 채택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진행 시 적도원칙 또는 ESG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 전문가 및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를 통해 PF 활동이 적도원칙 또는 ESG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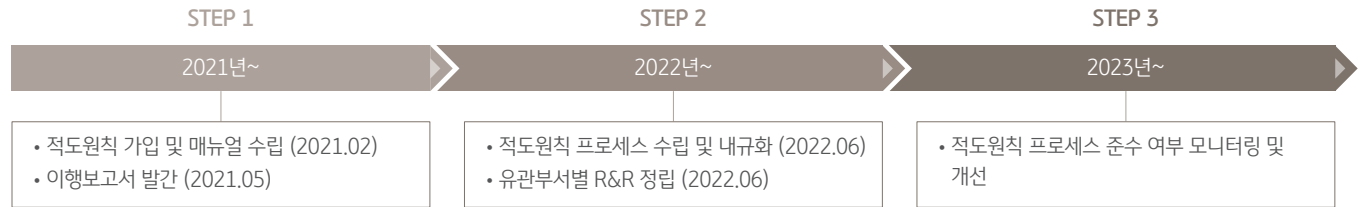
또한 2022년 6월에는 ‘적도원칙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환경·사회적 리스크 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적도원칙 전문가를 내부 담당자로 지정하여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 운영지침’ 내 적도원칙 프로세스에 제3자 독립 모니터링을 명시하고,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독립된 컨설턴트가 정기적으로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유관 부서에서는 프로젝트 금융(PF), 프로젝트 관련 기업 대출(PRCL), 프로젝트 관련 리파이낸스 및 인수금융 등 고위험 사업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합니다. 2022년에 KB국민은행이 취급한 프로젝트¹⁾ 중 적도원칙 적용 대상 프로젝트는 5개였으며, 해당 프로젝트 모두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1년 5월에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2020년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후 ‘정보공개 및 투명성’ 원칙에 따라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2년 KB국민은행 적도 원칙 이행보고서

¹⁾ 2022년 검토된 프로젝트 건수: 249건(총 프로젝트 대비 검토 비율: 100%),
2022년 약정체결(Financial close) 프로젝트 건수: 241건, 거절된 프로젝트 건수 0건
* 8건은 2022년에 검토되었으나 2023년에 약정체결됨

적도원칙 추진 로드맵



적도원칙 절차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활동

ESG를 반영한 투자·대출 심사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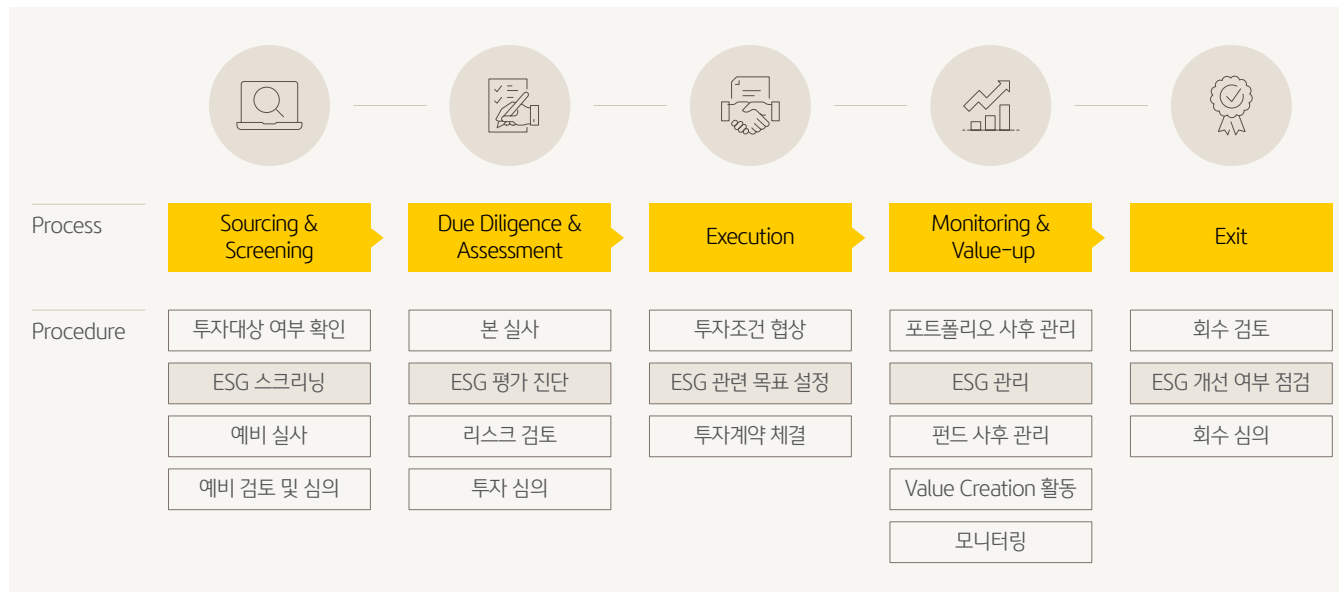
KB금융그룹은 투자·대출 심사에 ESG 기준을 적용하여 기후변화 리스크를 포함한 ESG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기업여신업무지침'에 따라 ESG 관련 항목을 신용등급 조정 및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와 대출 심사 시 ESG 관련 사항이 신용등급 또는 여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및 외감기업 등 특정 규모 이상의 여신을 대상으로 ESG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기업의 ESG 활동 평가 결과를 산업신용평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는 ESG 기반의 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ESG 투자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ESG Materiality Framework와 ESG Scoring Framework를 활용하여 투자 대상 기업을 철저히 스크리닝하고, ESG 평가 및 진단을 통해 ESG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금융 선언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선도그룹으로서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기 위하여 지난 2020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B금융그룹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인수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비즈니스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민간 환경 투자사업, 친환경 선박·자동차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 ESG 투자 프로세스



기후 관련 리스크 교육

KB금융그룹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7월 적도원칙을 고려한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교육을 심사역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8월에는 적도원칙 내용과 운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영업부서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표 및 목표(METRICS & TARGETS)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는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재무적인 요소와는 다르게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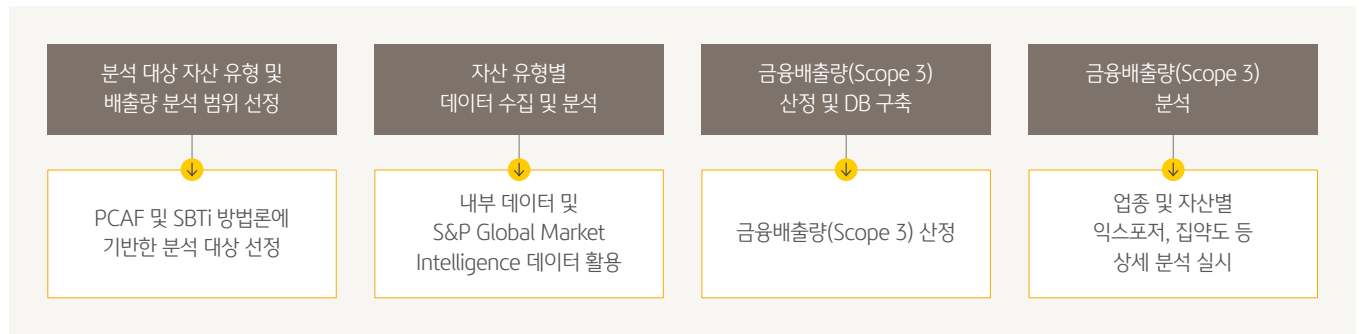
KB금융그룹은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며, 이에 대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금융배출량(Scope 3) 산정 프로세스

KB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PCAF¹⁾ 방법론을 활용하였습니다. PCAF의 방법론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일관성 있고 검증된 측정 기준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회계 표준인 GHG Protocol에 기반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SBTi²⁾에서 요구하는 기업금융, 발전PF, 상업용 부동산 등 자산 유형별 커버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배출량 측정 범위에 차량 대출 및 개인 모기지 대출 등을 포함하고, 2021년 기준의 기업금융 배출량 측정 대상을 익스포저 30억 원에서 2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5억 원 미만이라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기업 및 상장기업을 분석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Scope3) 산정 프로세스



¹⁾ 금융회사의 대출 및 투자와 연계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공통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과학적 기반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니셔티브
²⁾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 과학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방법론 개발 및 자문)를 제공하고 감축 목표 승인 등을 담당하는 이니셔티브

지표 및 목표(METRICS & TARGETS)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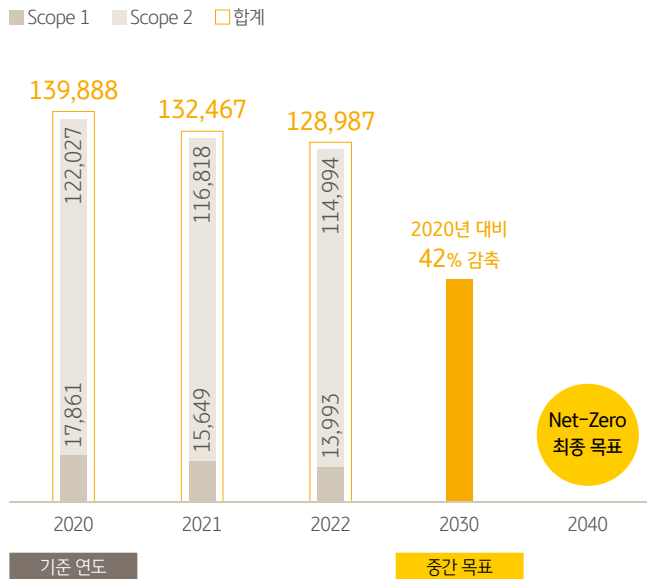
KB금융그룹은 SBTi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 방법론을 활용하여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21년 10월 SBTi로부터 탄소감축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과학적 기반의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승인받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이 SBTi의 기준에 따라 명확한 감축 목표를 수립함은 물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부배출량(Scope 1&2)

KB금융그룹은 '절대량 감축 접근법(ACA, Absolute Contraction Approach)'을 사용하여 내부배출량(Scope 1&2)의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절대량 감축 접근법은 기준 연도 대비 목표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 절대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나리오에서 요구하는 절대 감축량을 매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KB금융그룹은 SBTi 권고에 따라 2020년을 기준 연도로 삼고, 1.5°C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030년까지 기준 연도 대비 42%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2040년에는 내부배출량(Scope 1&2)을 넷제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KB금융그룹의 2022년 내부배출량(Scope 1&2)은 128,987 tCO₂eq으로 전년 대비 약 3,480 tCO₂eq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자가설치의 확대, 전기자동차 전환 확대,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사업에 기인합니다. 다만, 2022년 내부배출량 감축량은 2021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 연수원 등 업무시설의 사용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금융그룹은 2023년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KB금융그룹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313,730 MWh로 감축목표(319,682 MWh) 대비 약 5,952 MWh의 감축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부배출량(Scope 1&2) 목표 및 현황 (단위: tCO₂eq)



총 에너지 사용량 목표 및 현황 (단위: MWh)

| 구분 | 2020 | 2021 | 2022 | 전년 대비 | |
|--------------|---------|---------|---------|---------|--------|
| | | | | 증감량 | 비율 |
| Scope 1 | 17,861 | 15,649 | 13,993 | (1,656) | -10.6% |
| Scope 2 | 122,027 | 116,818 | 114,994 | (1,824) | -1.6% |
| 합계 | 139,888 | 132,467 | 128,987 | (3,480) | -2.6% |
| Scope 1&2 목표 | - | 134,013 | 128,137 | - | - |
| 목표 대비 감축량 | (기준 연도) | +1,546 | -850 | - | - |

총 에너지 사용량 목표 및 현황 (단위: MWh)

| 구분 | 2020 | 2021 | 2022 | 전년 대비 | |
|--------------|---------|---------|---------|----------|-------|
| | | | | 증감량 | 비율 |
| 총 에너지 사용량 | 348,998 | 330,131 | 313,730 | (16,401) | -5.0% |
| 총 에너지 사용량 목표 | - | 334,340 | 319,682 | - | - |
| 목표 대비 감축량 | (기준 연도) | +4,209 | +5,952 | - | - |

지표 및 목표(METRICS & TARGETS)

금융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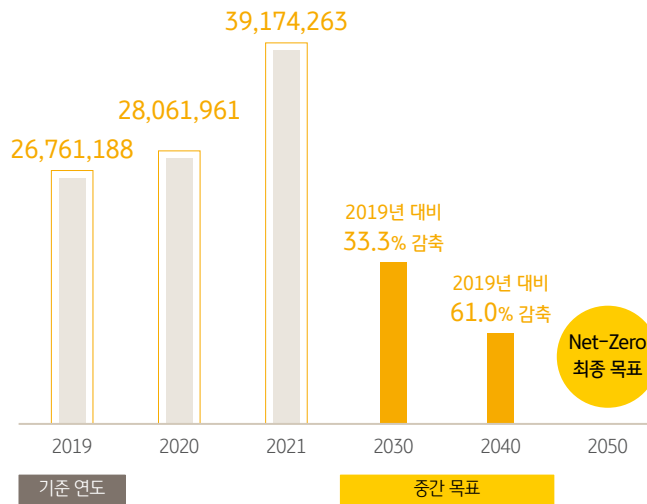
KB금융그룹은 SBTi의 방법론에 따라 금융배출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발전PF, 발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지&펄프, 상업용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는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SDA, Sector Decarbonization Approach)’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기업금융 부문에는 ‘온도 등급(Temperature Ratings)’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재생에너지 발전 PF에 투자함으로써 ‘기존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가 배출하는 탄소를 회피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는 회피 배출량의 개념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 말 기준 KB금융그룹이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 PF의 익스포저는 4,980억 원이며, PCAF 가이드라인 발전 PF 산출 지침에 따라 산정된 회피 배출량은 약 15만 톤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회피 배출량 산정 시 재생에너지 발전 PF 건별 발전량과 국가별 회피배출 계수 및 KB 할당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의 2021년 금융배출량은 약 3,917만 톤으로 2020년 산출 결과 대비 약 1,111만 톤이 증가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이 증가한 이유는 기업금융 자산의 측정범위가 확대되고, 신규 자산군에 대한 측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금융의 경우 대출 및 투자 익스포저가 기존의 30억 원 이상에서 25억 원 이상으로 측정 커버리지가 확대되었으며, 차량 대출 및 모기지 대출과 같은 신규 자산군에 대한 측정이 도입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배출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 목표 및 실적

(단위: tCO₂eq)



이처럼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은 자산 성장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중장기적인 이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탄소 집약도(Intensity)’를 병행 관리해야 합니다. 탄소 집약도란 단위 당 탄소배출량을 뜻하는 것으로, 자산 규모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고 포트폴리오 간 상대적인 배출량 수준을 비교하는데 사용됩니다.

KB금융그룹의 2021년 자산 포트폴리오에서는 기업금융 및 상업용 부동산의 탄소 집약도가 감소하였으나, 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탄소 집약도는 증가하였습니다. 기업금융 자산의 탄소 집약도 감소는 KB금융그룹의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기업들의 매출액 당 배출량이 감소하였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저탄소 기업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탄소 집약도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인해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집약도 증가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금융배출량 현황

(단위: 조 원, tCO₂eq)

| 구분 | 2019 | | | 2020 | | | 2021 | | |
|----------------------|------|------------|-------|------|------------|-------|-------|------------|-------------------|
| | 익스포저 | 배출량 | 집약도 | 익스포저 | 배출량 | 집약도 | 익스포저 | 배출량 | 집약도 ¹⁾ |
| 기업금융 | 51.5 | 24,526,555 | 0.468 | 76.9 | 25,714,931 | 0.402 | 103.9 | 35,331,842 | 0.391 |
| 발전PF | 1.2 | 2,172,390 | 0.441 | 1.3 | 2,310,499 | 0.439 | 1.5 | 2,887,589 | 0.452 |
| 자산유형 | | | | | | | | | |
| 상업용 부동산 | 2.1 | 62,243 | 0.09 | 2.7 | 36,531 | 0.052 | 5.1 | 65,629 | 0.046 |
| 차량 대출 ²⁾ | - | - | - | - | - | - | 6.8 | 521,308 | 0.159 |
| 모기지 대출 ²⁾ | - | - | - | - | - | - | 47.8 | 367,895 | 0.033 |
| 합계 | 54.8 | 26,761,188 | - | 80.9 | 28,061,961 | - | 165.1 | 39,174,263 | - |

¹⁾ • 기업금융은 가중평균 탄소집약도(WACI, Weighted Average Carbon Intensity) 적용, 발전PF 및 상업용 부동산은 생산단위당 집약도(Physical Intensity) 적용

• 기업금융: tCO₂eq/백만 원, 발전 PF: tCO₂eq /MWh, 상업용 부동산/모기지 대출: tCO₂eq /m², 차량 대출: kgCO₂eq /km

²⁾ 신규 측정 항목

지표 및 목표(METRICS & TARGETS)

SBTi 방법론

KB금융그룹은 SBTi 방법론에 따라 금융배출량 산정 및 목표 설정에 있어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SDA, Sector Decarbonization Approach)과 온도 등급(Temperature Ratings)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SDA)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SDA)은 각 산업 부문별로 탄소중립에 이르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탄소 집약도를 주요 지표로 사용하여 감축 목표를 수립하며, SBTi 방법론 중 유일하게 섹터(산업 부문)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수 있어 금융 부문에 가장 적합합니다. KB금융그룹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집약도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 대비 2030년 33.3% 감축, 2040년 61% 감축,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발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지&펄프, 발전PF, 상업용 부동산 등 산업 부문별로 감축 목표와 그에 따른 경로를 설정하였습니다.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에 따른 목표 설정

| | |
|--------------------|--|
| 대상 | 발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지&펄프, 발전PF, 상업용 부동산 업종 (SBTi 권고사항 기반) |
| 기준 연도 | 2019년 |
|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집약도 산출 | ① 대출 및 투자 기업의 총 탄소배출량 측정 • 대상 기업의 내부배출량(Scope 1&2) 및 외부배출량(Scope 3) |
| | ② 금융배출량 산정 •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배출량 산정 |
| | ③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집약도 도출 • '금융배출량/각 자산 유형별 활동'으로 산정 |
| 탄소중립 목표 수립 | Well-below 2°C 시나리오 기반 감축 목표 및 경로 수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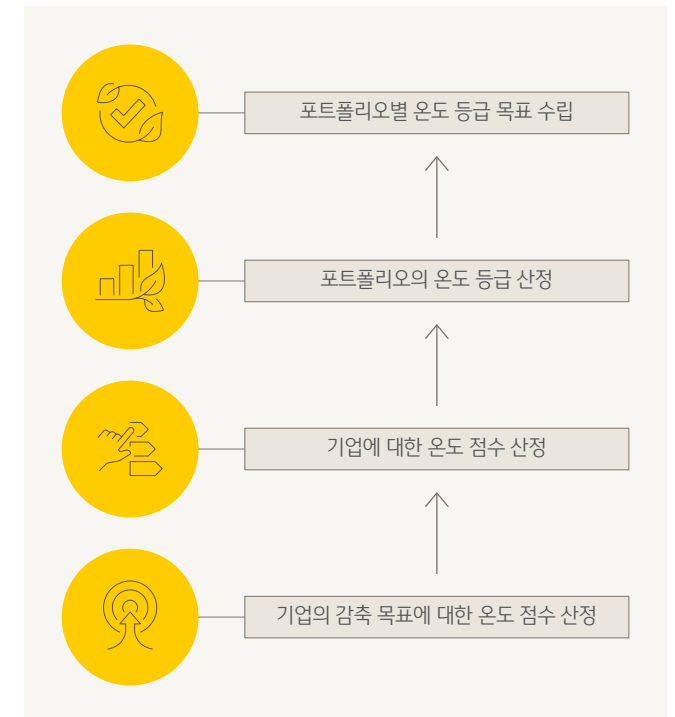
온도 등급(Temperature Ratings)

KB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SDA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금융 내 기타 섹터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SBTi의 온도 등급 방법론(Temperature Ratings Methodology)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방법론은 기업들의 탄소 중립 목표를 장기적인 온도 목표와 연결하여 보다 직관적인 지표인 온도 등급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목표의 온도 등급은 1.8°C이며, 이는 해당 목표를 달성할 경우 2100년 기준으로 1.8°C 이하로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KB금융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가 높을수록 기업의 온도 점수는 낮아지고 결국 KB금융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 온도 등급도 낮아집니다.

KB금융그룹은 기업금융 내 기타 섹터를 대출,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로 분류하고, 각 포트폴리오별 온도 등급에 따라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은 각 포트폴리오 자산(대출, 주식, 채권)에 대해 2040년까지 Scope 1&2는 1.75°C, Scope 1&2&3는 2.0°C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각 포트폴리오의 온도 등급을 낮추기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 내 기업이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도 등급 방법론에 따른 목표 설정



지표 및 목표(METRICS & TARG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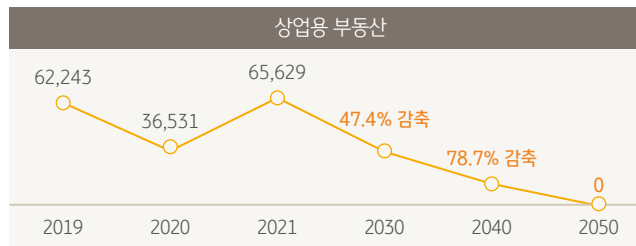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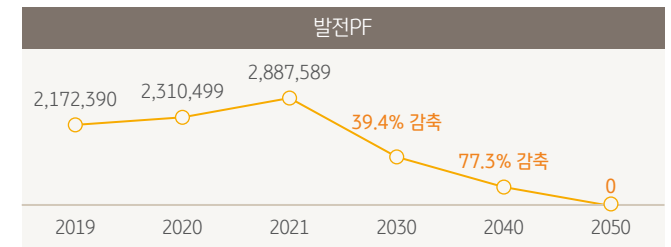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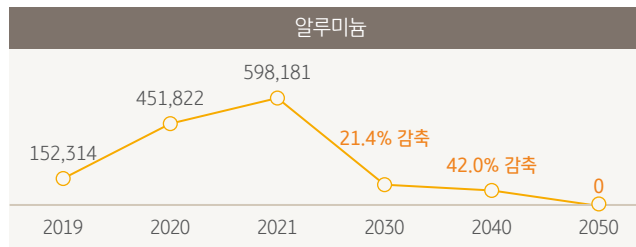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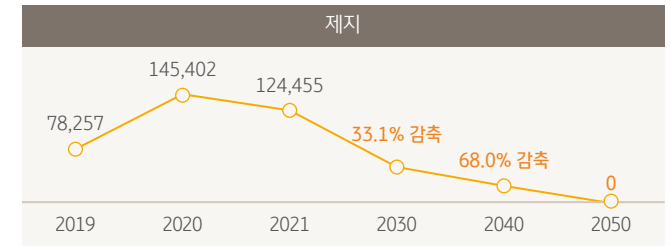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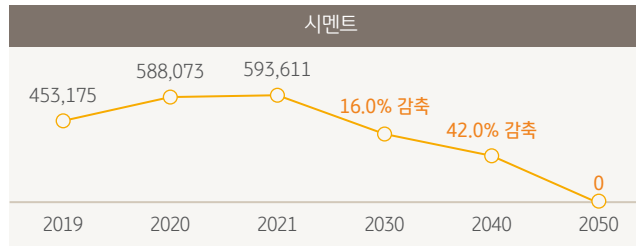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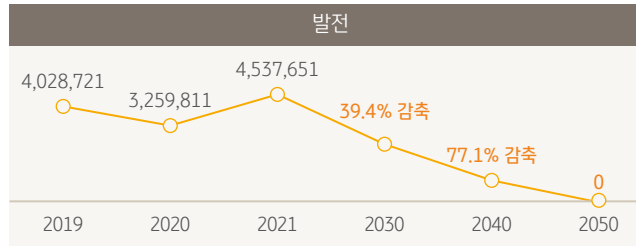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및 경로

KB금융그룹은 SDA에 따라 산업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로를 설정하여 금융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SDA를 적용하지 않은 금융배출량에 대해서는 온도 등급 방법론을 활용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온도 등급이 2020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일부 포트폴리오에서는 온도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첫째, 분석 대상을 확대한 결과 신규 편입된 대상기업 중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가 없는 기업의 확대, 둘째, 대출 및 주식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일부 자산의 배출량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KB금융그룹은 포트폴리오 내 기업이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Engagement)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금융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법(SDA)에 따른 산업 부문별 감축 목표 및 경로

(단위: tCO₂e)



지표 및 목표(METRICS & TARGETS)

온도 등급(Temperature Ratings) 방식에 따른 산업 부문별 감축 목표 및 경로

